

# KMI 북방물류리포트

**VOL.200**  
JAN 07 2021

발간년월 2022년 1월 7일(통권 제200호)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(동삼동)

발행인 김종덕 총괄 이주호 감수 최재선 담당 김엄지·유지원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

자료문의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 TEL +82-51-797-4776 FAX +82-51-797-4659



## 주요 동향

- 2021년 러시아 물류 시장 : 평가와 향후 대응
- 연해주 주지사, 연해주는 '러시아 교통의 창'
- 러 트랜스컨테이너, 중국 화물의 철송 신기록
- 우크라이나, 러시아 선박 내륙수로 통항 금지

## 주요 통계

- 2021년 11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(건·액체화물)
- 2021년 9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\*
- 2021년 9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입 규모\*

\* 러시아 극동지역 통계청이 10월 이후 통계자료를 아직 업로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.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.



## 주요 동향



### 2021년 러시아 물류 시장 : 평가와 향후 대응방안

#### ■ 코로나19, 수에즈 운하 컨테이너선 좌초사고, 컨테이너 부족 사태, 선박 부족 등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공급망에 악영향

- 특히 코로나19는 경제의 모든 영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, 특히 물류체계와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음
-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 물류 전문가들은 2021년 1년 동안의 물류시장의 변화를 진단하고, 향후 전망을 피력하였음

#### ■ 러시아 철도청의 산하기관인 'RZD Logistics' : 해운 부문에서 가장 큰 변화

- 2020년 초 대비 해운 비용은 6배, 운송 시간은 2~4배 증가했다고 지적하면서 물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항만에서 이를 모두 수용하지 못해 혼란이 가중되었다고 평가했음
- 특히 11월 중국발 화물량이 급증하면서 극동 항만의 수용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었음
- 2021년 3월 발생한 수에즈 운하 사고도 빼놓을 수 없으며, 이를 계기로 대체할 물류 루트로 러시아를 통과하는 루트(철도 및 북극항로)가 주목받고 있다고 지적하였음
- 그러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낮은 인프라 개발 속도, 코로나 19로 인한 특정 국가의 국경 제한, 보수적인 위생 기준, 복잡한 세관 절차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시했음

#### ■ FESCO : 공급망 불균형으로 선박 운항 시간 늘어 화물 정시운송 지장 초래

- 화주는 운송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극동 항만을 통과하는 경로를 선택했으며, 코로나19 사태와 중국의 에너지 부족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, 중국 항만과 철도를 통한 중러 간 물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

#### ■ Delo : 러시아 역내를 통과하는 경로가 새로운 물류루트로 부상한다고 전망

- 2021년 3분기 철도를 통한 컨테이너는 47% 증가했고, 2021년 말 100만 TEU를 초과해

역대 최대 물동량을 기록했으며, 컨테이너 1TEU당 1만 달러의 이익이 남는다고 할 경우, 수에즈 운하를 비롯한 다른 물류 루트를 러시아 통과 루트가 대체할 경우, 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

- Delo 전문가는 2022년 컨테이너 운송시장이 10~11%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으며, 한 민간연구소는 2021년 말 러시아 철도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2020년에 비해 11% 증가한 640만 TEU를 기록했으며, 2022년에도 성장세가 이어져 물동량이 700만 TEU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음

## ■ Global Ports : 대기업이나 공장은 재고에 대한 접근 방법을 바꾼다고 진단

- 최종 구매자는 상품을 받기까지의 시간이 증가했으며, 제조사와 유통업체는 상품 배송 지연에 대한 리스크가 커졌음을 인식했음
- 물류체계에서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대기업은 창고에 재고를 쌓아두고 있으며, 이는 글로벌 물류의 실패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음

## ■ TransContainer : 컨테이너 공급 부족사태 해결에도 수급 불균형 문제 여전

- 글로벌 리스크는 공급망에 즉시 영향을 미치는데, 2021년은 전세계적으로 실질적 리스크가 많이 증가한 해였음
- 컨테이너 부족, 선박의 부족, 수에즈 운하 사태로 인한 불안감 조성 등은 물류비를 증가시켰음

## ■ 머스크 : 중국발 화물이 극동 지역 항만으로 몰리면서 연쇄적인 체선 발생

- 해운회사 머스크 사장은 러시아 시장이 타 시장 대비 유연함에도 불구하고, 중국발 물동량 또한 극동지역 항만으로 몰리면서 인프라의 한계 문제에 부딪혔으며, 부산~블라디보스톡 컨테이너 배송이 지연되는 등 도미노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

김엄지 연구원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  
(umjikim@kmi.re.kr/051-797-4776)

---

### 참고자료

- a) <https://ria.ru/20211222/logistika-1764837293.html>(2022.1.5. 검색)
- b) <https://www.interfax.ru/business/813477>(2022.1.5. 검색)

## 연해주 주지사, 연해주는 ‘러시아 교통의 창’

그림. 러시아 연해주 주지사 라운드 테이블 참석



자료: <https://www.primorsky.ru/news/261317/>

### ■ 연해주 주지사는 연해주가 공급망뿐만 아니라 중요한 글로벌 ‘게이트’이자, 러시아, 유럽, 중국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지라고 언급

- 연해주 주지사는 최근 "극동을 통한 물류: 새로운 도전과 시스템 문제"라는 주제의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하여 연해주 지역은 ‘러시아 교통의 창’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
- 또 그는 연해주 지역은 철도를 포함해 해상, 도로를 통해 상품을 전국으로, 국제적으로 운송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
- 2021년 발생한 수에즈 운하 사태, 중국발 화물량 급증 등으로 인해 발생한 극동 항만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 연방 교통부와 협의 후 국가 보고서에 내용을 포함하여 중앙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

### ■ 해당 라운드 테이블은 ‘태평양-러시아’ 행사의 하나로 러시아 언론인 연합과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가 공동으로 개최한 플랫폼임

- 해당 플랫폼은 연구자, 언론인, 공무원 및 공공 기관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지역 개발, 지정학적 특징,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혁신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만든 대화의 장임

김엄지 연구원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  
(umjikim@kmi.re.kr/051-797-4776)

김혜영 리포터,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 
(gpdud027@hufs.ac.kr)

## 러 트랜스컨테이너, 중국 화물의 철송 신기록

그림. 러시아 자바이칼스크시 위치



자료: <https://www.weekinchina.com/2015/06/sent-to-siberia/>

### ■ 러 자바이칼스크에 위치한 트랜스컨테이너社 컨테이너 터미널 1년 동안 1,340대의 화물철도 운행<sup>a)</sup>

- 러시아의 최대 컨테이너 운송회사인 “트랜스컨테이너(TransContainer)”는 자바이칼스크 철도역과 협력하여 러시아-중국 국경 운송 통로인 자바이칼스크 터미널에서 2021년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17% 증가한 1,340대의 화물철도를 운행하였음
- 자바이칼스크 터미널에서 2016년 컨테이너 발송을 위한 운송로 최적화 프로그램 이행이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5,000대의 화물철도가 발송되었고, 매년 운행되는 철도는 증가하고 있음
- 세르게이 무힌(Sergey Mukhin) 트랜스컨테이너社 상업활동부 소속 부회장은 화물철도 발송량 증가와 관련하여, 수송 효율성 증대 및 수송 규모 확대는 트랜스컨테이너社 운송 전략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히면서,
- 자바이칼스크 철도역과의 협력 덕분에 화물철도 운행량이 증가하고 있으며, 기준 일간 화물철도 10량, 연간 3,000대 이상의 화물철도가 운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음

- 그는 또 이 같은 현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화물수송량의 원활한 처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함

## ■ 러-중 국경지대에 위치한 자바이칼스크시, 양국 육로수송을 위한 주요지역으로 자리매김

- 자바이칼스크 시는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지대에 있어 육로수송을 위한 화물철도터미널의 기반이 되는 지역으로, 연간 39만TEU 이상의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고 있음
- 현재 트랜스컨테이너社와 러시아 철도청은 자바이칼스크 화물철도터미널 화물 처리량 증대를 위한 공동핵심기술(cross-cutting technology) 개발 및 조성 프로젝트를 이행하고 있음
- 또한 트랜스컨테이너社는 터미널 처리 능력을 키우기 위해 2021년 자바이칼스크 역에 두 번째 화물터미널을 건설하였는데, 이 터미널의 내부 시설 재배치를 통해 2024년까지 자바이칼스크 터미널의 화물처리량을 50만TEU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임

유지원 연구원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

(jwyoo21@kmi.re.kr/051-797-4765)

# 우크라이나, 러시아 선박 내륙수로 통항 금지

그림. 마리우폴, 아조프해 항만



자료: <https://ria.ru/20220101/suda-1766343422.html>

## ■ 1월부터 우크라이나 내해에 러시아 선박의 통항 금지 법률 시행

- 이 법률에 따르면, 러시아 국기를 게양한 선박은 우크라이나 내륙수로 및 항만을 통해 승객과 화물을 운송할 수 없으며, 러시아 국적이 아닌 소유한 선박을 우크라이나 선박으로 등록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음
- 러시아 선박이 운항 금지되는 우크라이나 내륙수로로는 드네스트르(Dnestr), 드네프르(Dnepr), 두나이(Dunai) 등이 있음

## ■ 러시아는 2018년부터 우크라이나 항만에서 나가는 화물을 검사

- 이 같은 조치로 러시아 해안 경비대가 아조프해 우크라이나 항만으로 입출항하는 러시아 선박을 검사하는데 평균 20시간이 소요되며, 마리우폴(Mariupol), 베르잔스크(Berdyansk)로 수출할 경우 45.5시간이 소요됨
- 2018년의 경우 케르치 해협을 통과하는 허가증을 발급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5~7시간에 불과하였음
- 매달 평균 60~70척의 선박이 아조프해의 우크라이나 항만을 입출항하는데, 그 가운데 약

50%는 국적, 선주, 화물 목적지 등으로 유럽연합(EU)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, 우크라이나 수출 화물(금속 및 곡물)의 5~7%에 해당함

김엄지 연구원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  
(umjikim@kmi.re.kr/051-797-4776)

---

#### 참고자료

- a) <https://www.ukrinform.ru/rubric-economy/3380385-rossia-zaderzivaet-eksport-morem-iz-ukrainy-korabli-stoat-pocti-po-dvoe-sutok.html>(2022.1.5. 검색)
- b) <https://ria.ru/20220101/suda-1766343422.html>(2022.1.5. 검색)



## 주요 통계



표. 2021년 11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(건화물 및 액체화물)

(단위: 백만 톤, %)

수역*	건화물	액체화물	합계	2020/2021 증감율
극동지역	11.1 (+2.4%)	6.5 (-1.8%)	17.6	+0.9%
북극해	2.3 (-2.8%)	5.6(-0.7%)	7.9	-1.3%
발트해	10 (+6.1%)	12.3 (+3.4%)	22.3	+4.7%
아조프-흑해	8.9 (+2.2%)	11.1 (+0.6%)	19.9	+1.3%
카스피해	0.3 (-25.2%)	0.2 (-4.0%)	0.5	-13.0%
합계	32.6(+2.7%)	35.7(+0.8%)	68.3	+1.7%

\* 주: 극동해역: 블라디보스톡, 자루비노, 울가, 포시에트, 나호트카, 보스토치니, 바니노, 소비츠키야가반, 데-카스트리스, 네벨스크, 홀름스크, 프리고로드노예, 마가단,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

북극해: 무르만스크, 칸달라크샤, 나리얀마르, 두딘카, 아르한겔스크, 오네가, 바란데이, 페벡, 사베타

발트해: 상트페테르부르크, 프리모르스크, 브보스크, 비소츠크, 우스트-루가, 칼리닌그라드

아조프-흑해: 노보로시스크, 겔렌지크, 투압세, 타간로크, 아조프, 로스토프 나 도누, 다망, 템류크, 카프카즈

카스피해: 아스트라한, 올라, 마하치칼라

\*\* 주: 누적 물동량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

유지원 연구원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

(jwyoo21@kmi.re.kr/051-797-4765)

표. 2021년 9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\*\*\*

(단위: 천 달러)

EAEU 코드	품목	해외*		CIS**		합계	
		수출	수입	수출	수입	수출	수입
01-24	식료품 및 원자재	485,523.5	46,300.1	1,368.3	1,540.0	486,891.9	47,840.1
25-27	광물 제품	1,430,598.5	48,338.4	20,892.9	33,606.5	1,451,491.4	81,945.0
27	연료 및 에너지 제품	1,258,025.8	43,653.1	416.1	144.6	1,258,442.0	43,797.7
28-40	생고무 화학 제품	3,336.9	67,097.7	1,161.2	660.3	4,498.0	67,758.0
41-43	가죽원료모 피 제품	3.3	2,343.4	1.5	269.4	4.7	2,612.8
44-49	목재 및 펄프, 종이 제품	116,537.5	8,352.3	371.3	111.3	116,908.8	8,463.6
50-67	섬유·섬유제 품 및 신발	243.0	57,668.1	73.6	3,061.4	316.5	60,729.6
72-83	금속 및 금속 제품	52,329.1	71,061.1	1,088.4	2,814.8	53,417.5	73,875.9
84-90	기계류	90,364.1	523,718.5	1,976.0	2,841.5	92,340.1	526,559.9
68-71, 91-97	기타	303,776.1	50,374.1	42,886.2	234.8	346,662.3	50,608.9
	합계	2,482,712.0	875,253.9	69,819.2	45,140.0	2,552,531.2	920,393.8

\*주: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

\*\*주: 아제르바이잔, 아르메니아, 벨라루시, 카자흐스탄, 키르기스스탄, 몰도바, 타지키스탄, 우즈베키스탄

\*\*\*참고: 러시아 극동지역 통계청이 10월 이후 통계자료를 아직 업로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.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.

유지원 연구원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

(jwyoo21@kmi.re.kr/051-797-4765)

#### 참고자료

a) <https://dvtu.customs.gov.ru/statistic/2021-god/operativnaya-informacziya>(2021.11.15. 검색)

표. 2021년 9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입 규모\*\*\*

(단위: 톤, 천 달러)

EAEU 코드	품목	해외*		CIS**				합계					
		수출		수입		수출		수입		수출		수입	
		톤	천 달러	톤	천 달러	톤	천 달러	톤	천 달러	톤	천 달러	톤	천 달러
0302	냉장수산물	135	162.7	-	-	-	-	-	-	135	162.7	-	-
0303	냉동수산물	101,813	233,017.9	342	969	62	103.3	-	-	101,871	233,181.3	342	969
03031	연어	15,834	60,248.1	-	-	39	72.4	-	-	15,873	60,320.5	-	-
030331	광어	310	3,643.4	-	-	-	-	-	-	310	3,643.4	-	-
030332	가자미	747	637.2	-	-	-	-	-	-	747	637.2	-	-
030339	기타 넙치류	1,975	1,606.4	-	-	-	-	-	-	1,975	1,606.4	-	-
030351	청어	11,105	6,795.1	-	-	0	0	-	-	11,105	6,795.1	-	-
030363	대구	7452	21,311.8	-	-	-	-	-	-	7452	21,311.8	-	-
0303670000	명태	35,877	36,615.5	-	-	20	22.8	-	-	35,896	36,638.2	-	-
0303893	농어	15	35.3	-	-	-	-	-	-	15	35.3	-	-
030391	알류	8,513	106,322	-	-	0	0	-	-	8,513	106,322.1	-	-
030399	지느러미, 머리, 꼬리 및 기타 식용 어패류	697	1,056.5	-	-	-	-	-	-	697	1,056.5	-	-
0304	생선 필레	9,430	28,867.4	0	0.0	34	77	-	-	9464	28,944.4	75	254.5

0305	훈제 생선, 생선 가루	12	53.8	136	811.6	-	-	-	-	12	53.8	136	811.6
0306	갑각류	5,719	165,138.4	35	266.9	-	-	-	-	5,719	165,138.4	35	266.9
030614, 030633, 030693	게	5,202	159,520.2	-	-	-	-	-	-	5,202	159,520.2	-	-
0307	조개류	2,994	10,795.9	-	-	1	4.4	-	-	2,995	10,800.3	-	-
03072	가리비	406	720.2	-	-	-	-	-	-	406	720.2	-	-
03074, 03075	오징어 및 문어	1,979	5,262.2	165	754.3	1	4.4	-	-	1,981	5,266.6	165	754.3
0308	수생 무척추 동물*	826	2,561.1	-	-	-	-	-	-	826	2,561.1	-	-
03081	해삼	439	894.9	-	-	-	-	-	-	439	894.9	-	-
03082	성게	336	1,655.1	-	-	-	-	-	-	336	1,655.1	-	-

\* 주: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

\*\* 주: 아제르바이잔, 아르메니아, 벨라루시, 카자흐스탄, 키르기스스탄, 몰도바, 타지키스탄, 우즈베키스탄

\*\*\*참고: 러시아 극동지역 통계청이 10월 이후 통계자료를 아직 업로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.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.

유지원 연구원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

(jwyoo21@kmi.re.kr/051-797-4765)

## 참고자료

a) <https://dvtu.customs.gov.ru/statistic/2021-god/operativnaya-informacziya>(2021.11.15. 검색)